

K리그 흥행 열기 뜨겁다

26R서 3만여명 들어오면 지난 시즌 총관중 돌파
“시즌 말미 순위 경쟁·AFC 챔피언스리그 등 치열”



K리그 흥행 열기가 뜨겁다. 관중 수가 추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는 주말이면 K리그 2 모두 지난 시즌 총 관중 수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13일 “이번 주말 열리는 26라운드에서 K리그1, K리그2 모두 지난 시즌 총관중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연맹에 따르면 올 시즌 ‘하나원큐 K리그1 2019 25라운드(150경기)까지 누적 관중은 120만7307명이다. 이는 지난해 K리그1 38라운드(228경기)

까지 총관중 수(124만320)에 근접한 수치다.

이번 주말 26라운드에서 3만3723명(경기당 평균 5621명) 이상 경기장을 찾았다면, 지난 시즌 총관중을 돌파하게 된다. 올 시즌 경기당 평균 유료 관중 수가 8051명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무리가 없어 보인다.

K리그2의 관중 상승세도 만만치 않다. 현재 23라운드(115경기)까지 누적 관중은 30만4953명으로, K리그1과 마찬가지로 지난 시즌 K리그2 40라운드(182경기)까지 총 관중(31만627명)에 근접했다.

오는 주말 24라운드에서 5647명(경기당 평균 1135명)이 더 들어오면 지난 시즌 총관중을 돌파하게 된다. 올 시즌 K리그2의 경기당 평균 관중이 1521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K리그2 역시 이번 주말 경기에서 지난 시즌 총관중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연맹 관계자는 “날씨가 무덥지만 팬들의 사랑이 뜨겁다”며 “시즌 말미로 접어들면서 순위 경쟁,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ACL) 진출 승격 경쟁 등이 치열해지면서 관중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CBS스포츠 “류현진 있는 다저스, 역대 선발진 10위”



류현진(32)이 버티고 있는 2019년 LA 다저스의 선발진이 역대 10위라는 평가를 받았다. 미국 CBS스포츠는 라이브를 시대인 1920년부터 지금까지 메이저리그 역대 최고의 선발진 톱10을 선정해 13일(한국시간) 발표했다. 이 순위에서 ‘2019년의 다저스’가 10위에 이름을 올렸다. 현재 다저스는 류현진, 위키 볼러, 클레이튼 커쇼, 리치 힐, 마에다 겐타로 선발진을 꾸리고 있다. CBS스포츠는 “다저스는 정규시즌에 훌륭한 피칭을 보여주는 커쇼를 비롯

해 최근 몇 년간 최고의 영건으로 꼽히는 볼러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시즌 강력한 사이영상 수상 후보인 류현진을 보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CBS스포츠는 이러한 선발진을 바탕으로 다저스의 전력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올라갈 것이라 내다봤다. 류현진은 이번 시즌 11승 2패 평균 자책점 1.45로 최고의 활약을 펼치며 내셔널리그(NL) 사이영상의 선두 주자로 입지를 굳혔다. 지난 12일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

스와 홈경기에 선발 등판한 류현진은 7이닝 무실점 완벽투를 펼치며 평균 자책점을 종전 1.53에서 1.45로 끌어 내렸다.

“2019년의 휴스턴 애스트로스”도 역대 최고의 선발진 3위에 이름을 올렸다. 휴스턴의 선발진에는 저스틴 벨랜드, 게릿 콜, 잭 그레인키, 웨이드 마일리, 아론 산체스가 있다.

휴스턴은 이번 시즌 트레이드를 통해 애리조나에서 그레인키를 영입해 선발진을 강화했다.

CBS스포츠는 “휴스턴이 그레인키의 실력을 한층 끌어올릴 수 있을진 미지수지만 그레인키는 이 시대의 가장 효율적인 투수 중 한 명”이라며 “휴스턴은 발렌타와 그레인키라는 미래의 명예의 전당에 오를 두 선수를 갖고 있다”고 평했다.

그러면서 “과거의 성공 사례와 앞으로 가능성을 봤을 때 휴스턴은 가장 재능있는 로테이션을 꾸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역대 최고의 선발진 1위에는 ‘1998년 애틀랜타 브레이브스’가 선정됐다. 당시 애틀랜타는 그렉 매덕스, 톰 글래빈, 테니 니글, 케빈 밀우즈, 존 스몰츠가 선발진을 이끌었다.

한때 기피 포지션이던 ‘GK’, 인식·인기·연봉 UP

전문 코치들 프로팀 배치 체계적 교육 가능해져



지난 11일 울산중합운동장에서 열린 울산현대와 대구FC의 경기를 앞두고 대한축구협회는 공식 SNS 계정에 ‘김승규vs조현우 국가대표 수문장들의 K리그 첫 맞대결’이라는 문구와 함께 두 선수의 캐리커처를 게재했다. 이례적인 일이었다.

축구협회가 협회 직접 소관이 아닌 K리그 경기를 홍보하는 것도 자주 있는 일이 아니지만 전면에 내세우는 간판스타가 양 팀의 골키퍼라는 것은 더더욱 낯선 모습이었다. 협회 관계자는 “주목할 경기, 신선한 이슈가 있으면 가끔 이렇게 만든다. 마침 대표팀에서 경쟁하는 골키퍼들의 맞대결 경기가 있어서 만들어봤다”고 전했다. 이제 골키퍼가 이슈가 되는 시절이 왔다.

그리 멀지 않은 과거까지도 골키퍼는 한국 축구의 가장 취약한 포지션 중 하나였다. 예나 지금이나 축구 꿈나무들 중 골 좀 찬다는 친구들은 공격수를 원한다. 박지성 이후 미드필드 지원자들이 크게 늘었지만 여전히 수비수는 선호하지 않는다. 골키퍼는 더더욱 소외된다.

잠재력을 갖춘 유망주들이 공격수나 미드필드로 빠져나가다보니 대형 수비수, 뛰어난 골키퍼가 잘 나

지 않았던 게 한국 축구의 현실이었다. 하지만 상황이 달라졌다. 축구협회가 자랑스럽게 소개한 울산 김승규와 대구 조현우를 비롯해 A급 수문장들이 수두룩하다.

유상훈(서울) 송범근(전북) 윤보상(상주) 노동건(수원) 오승훈(제주) 등 K리그 각 구단들의 No.1 골키퍼들의 수준이 상향평준화 됐다는 게 현장의 평가다. 여자 축구대표팀을 이끌고 지난여름 프랑스여자월드컵에 출전했던 윤덕여 감독은 “남자 대표팀을 보면 부러울 뿐이다. 좋은 골키퍼들이 참 많다. 솔직히 K리그에서 주전으로 뛰는 골키퍼라면 누구를 대표팀에 데려와도 큰 문제가 없을 정도로 기량들이 좋다”는 속마음을 전한 바 있다.

이웃 일본 J리그로 시선을 돌려도 권순태(가시마 엔블러스) 정성룡(가와사키 프론타레) 김진현(세레소) 등 사가 구성윤(후사도레 삿포로) 등 한국산 지킴이들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김승규가 최근까지 비셀 고베에서 뛰는 것을 포함해 해외진출 GK도 꽤 많아졌다. 더 고무적인 것은 좋은 선수가 빠져나갔음에도 대체자들이 빈자리를 느끼게 하지 못하는 활약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

다. 1983년 시작된 한국 프로축구리그 초창기에는 사리제프(신의손) 등 많은 팀들이 외국인 골키퍼를 썼다. 한국인 골키퍼들의 수준이 부족했던 영향이 컸다. 그런데 토종 골키퍼들의 수준이 점점 더 높아진다는 축구계 내부의 우려와 함께 1996년부터 외국인 골키퍼 출전에 제한을 두기 시작했고 1999년부터는 아예 외국인 골키퍼 영입 금지 조항이 생겼다. 이렇듯 가장 취약했던 자리인데 어느덧 풍성해졌다.

2002 한일 월드컵과 2010 남아공 월드컵 때 대표팀 GK코치로 활약한 것을 비롯, 사실상 대한민국 GK코치 1세대라 부를 수 있는 김현태 프로축구연맹 경기위원장은 “예전에 골키퍼는, 선호하지 않는 수준이 아니라 기피 포지션이었다. 인기도 없었고 다른 포지션 선수들에 비해 연봉도 적었으니 하려는 선수가 없었

다. 지원자 자체가 부족했으니 그속에서 좋은 선수 건지는 것은 더 어려웠다”고 과거를 회상했다. 이어 “우리가 선수 생활할 때만해도 GK코치 자체가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1990년대 말, 2000년대 초반 들어 전문적인 골키퍼 코치들이 프로팀에 배치되면서 체계적인 교육이 가능해졌고 그 시간이 쌓이면서 우리 수문장들의 수준도 많이 올라왔다”고 견해를 밝혔다. 이 흐름은 앞으로 더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조현우도 그렇고 김승규도 그렇고 프로에 좋은 골키퍼들이 많다. K리그 뿐만이 아니다. K리그2 경기장을 가 봐도 좋은 골키퍼들이 많다. 대학교에도 많다”고 흐릿한 표정을 짓는다. “올해 올스타전(유벤투스 친선경기) 최다득표자가 골키퍼 조현우였다. 처음 있는 일이다. 골키퍼를 바라보는 인식도 달라졌고 인기도, 연봉도 높아졌다. 앞으로 이 흐름은 더 이어질 것”이라고 긍정적 견해를 피력했다.

뉴스1

허미정, 세계랭킹 36계단 오른 43위

고진영 3주째 1위

허미정(30·대방건설)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투어 통산 3번째 우승으로 세계랭킹을 대폭 끌어 올렸다. 허미정은 13일(한국시간) 발표된 여자골프 세계랭킹에서 랭킹 포인트 2.18점을 기록, 전주보다 36계단 오른

43위에 자리했다.

지난 12일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끝난 스코틀랜드오픈에서 우승을 차지한 허미정은 2009년 세이프웨이 클래식, 2014년 요코하마 타이거 클래식 이후 약 5년 만에 LPGA투어 통산 3승을 달성했다. 일본여자프로골프(JLPGA)투어 훗카

이도 메이저컵에서 우승한 배선우(26·삼천리)는 40위에서 34위로 상승했다.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투어 제주 삼다수 마스터즈에서 우승을 차지한 유혜란(18·SK네트웍스)은 1313위에서 199위로, 무려 1114계단 강종 뛰어 올랐다. 상위권은 변함 없었다. 고진영(24·하이트진로)이 3주 연속 1위에 올랐고 박성현(26·솔레이아)이 2위를 유지했다.

뉴스1

도민을 먼저 생각하는 전라남도

전남도, 정부합동평가 우수사례 전국 2위

앞으로도 좋은 정책으로 열심히 일하는 전라남도가 되겠습니다!